

2 종합

유웨이 장애에
수시 원서접수 차질
우리대학은 경쟁률
공개 논란 피해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우리학교를 비롯한 56개 대학이 피해 수험생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가 마무리된 가운데 우리학교는 기존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경쟁률 확인 후 지원’ 논란에서는 비켜갔다.

시스템 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발생해 오후 6시 20분께 복구됐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앞둔 수험생들이 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마감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당초 교육부는 장애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 시간대에 원서를 작성·저장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전산 기록이 확인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를 진행했다.

구제 신청은 지난 16일 마감됐으며, 총 1,588건이 접수됐다. 이 중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결정됐고, 실제 추가 원서 접수까지 마친 건은 250건으로 집계됐다. 구제 대상자는 장애 당시 기록에 남은 대학과 전형, 모집단위로만 추가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마감이 연장된 사이 17개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과, 정해진 마감시간에 지원을 마친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를 점검하고,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접수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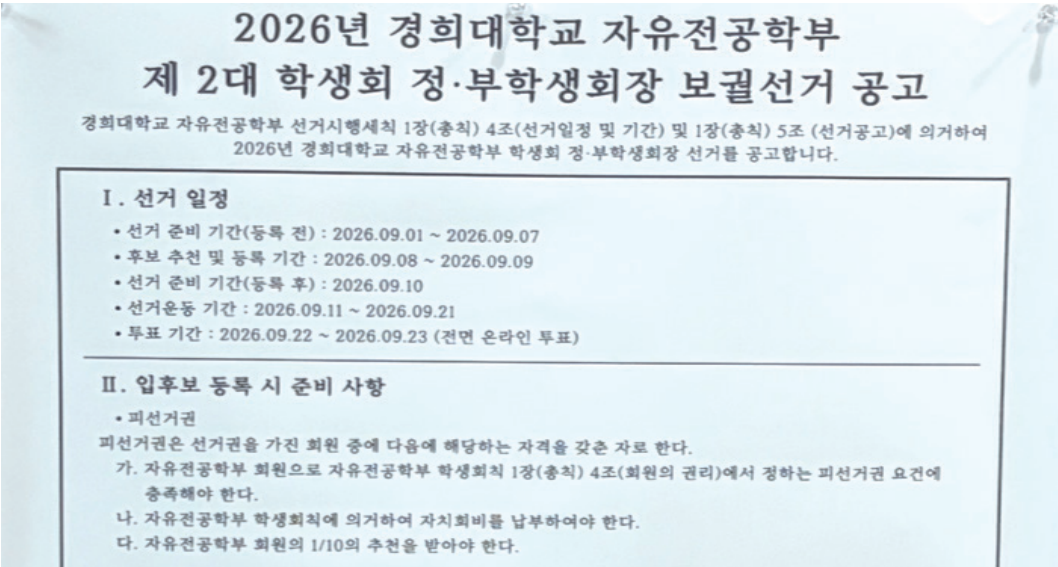
한편 우리학교는 오후 6시 20분까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입학처는 “오후 6시 20분까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아 연장 접수에 따른 경쟁률 변화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 논술우수자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이지빈(21) 씨는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입시인 만큼 수험생들이 이번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경쟁률은 3,006명 모집에 6만 7,973명이 지원해 22.6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모집단위는 논술우수자전형 한의예과(인문)로, 5명 모집에 3,110명이 지원해 6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원서접수 시스템의 장애 원인과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전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자유전공학부 보궐선거 공고문

(사진=곽승윤 기자)

자유전공학부, 9월 보궐선거
학생회 구성돼도 중운위 참여는 미정

곽승윤 기자 ksymickey05@khu.ac.kr

【국제】 오는 22일부터 이틀 간 자유전공학부(자전)의 학생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후보에는 결(結) 선분의 도유성(자유전공학 2026) 씨와 황성민(자유전공학 2026)씨가 각각 정후보와 부후보로 출마한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총선거에서 입후보자 미출마로 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일부 단과대 및 학부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거쳐 지난 3월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다만 자전의 경우, 당시 입후보를 희망한 선분의 제출 서류 미비로 선거가 무산됐고, 현재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비대위는 정식 선거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 아니기에, 대표성 결여 문제가 있다. 도 정후보는 “학부생들의 신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전은 이러한 비대위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학생회(총학) 측에 지속적으로 보궐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1학기에 도 자전 측에서 보궐선거 진행을 요청했지만, 선거 절차 및 선거시행세칙의 미비점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다만 학생자치 참여의 공백 발생으로 제 15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시행세칙에는 11월 총선거와 3월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만 있다. 이에 총학은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확보를 위해 자전 측에 자체적인 선거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자전 측은 그에 따른 자체 시행세칙을 만들어 제출했으며 방학 중 총학에 의해 확정됐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학생회가 새롭게 구성되더라도 자전의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참여

문제는 남아 있다. 총학생회칙 제 51조 1항에 따르면 중운위 참여 대상은 ‘선거와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시행세칙은 단과대학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학부 단위로 운영되는 자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3월 말 자전의 중운위 참여를 위한 회칙 개정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자전을 단과대 단위로 인정하고 자전의 중운위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끝내 학생총투표에서 개표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다. (관련기사: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 무산…자유전공학부 중운위 참여 어려워/대학주보 1759호/2026.04.11)

이와 관련 정 총학생회장은 “11월 총선거 전후로 ‘선거시행세칙 개정 TF’를 추진해 자전의 학생자치기구 참여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빠르고 더 가깝게
대학주보, 이제 Threads에서도!



대학주보 스레드 @khunews_jubo 팔로우 하시고 학내의 뉴스와 다양한 콘텐츠 만나보세요